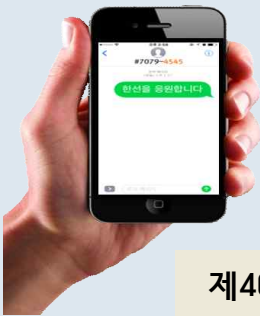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국정 운영: '비정상적 정상화'의 길
[발제자] 윤평중 한신대학교 명예교수
[일 시] 2022년 9월 1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Google Meet 온라인 세미나



☒ 문자 후원
#7079-4545

제403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와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를 강조했다. 이전 정부와 달리 '자유'를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보수가 주류로 작동해왔던 시기에 보수에 대한 비판은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의 결합인 수구 자유주의라는 것이었다. 그와 차별화되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 자유를 화두로 내세웠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

되어야 한다. 급진자유주의 방식으로 한국 자유주의가 재구성되어야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명시적인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다.

■ 최대연합의 정책과 인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정치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며 정치적 사활의 문제다. 21세기의 그레이트 게임인 미중 패권경쟁과 북한문제는 대한민국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 대통령 리더십 위기가 한국 우파의 위기로 확산되고, 한국 우파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민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여 대처해야한다.

◆ 무엇이 문제인가

-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몇몇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취임 100일 동안 그 성과를 압도하는 대혼란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대적 반사정치가 불러낸 수동적 대통령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권위적인 모습도 드러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정치로 불러낸 시대정신이 무엇이며, 21세기 한국 우파정부가 세계사와 한국사의 흐름에서 어떤 위치에 서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결여가 현재 전면적인 리더십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 ◆ 현재, 국가철학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와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를 강조했다. 이전 정부와 달리 ‘자유’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치세의 화두로 자유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보수가 주류로 작동해왔던 시기에 보수에 대한 비판은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의 결합인 수구 자유주의였다. 그와 차별화되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자유를 화두로 내세웠다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야한다. 급진자유주의의 방식으로 한국 자유주의가 재구성되어야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

가.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국가의 중요성

- ◆ 세계질서가 급변상황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굳건하게 정립되어왔던 국제거버넌스가 부서지고 있다. 거대한 퇴행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극명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보여진다. 정치사상적으로 보면 포스트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비민주자유주의(Non-democratic Liberalism, 신자유주의)와 비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 신권위주의)가 혼란스럽게 공존하고 있다. 게다가 지구적 경제위기, 격차 확대, 환경재앙, 세계 (핵)전쟁 위험도 극적으로 증가했다. 동아시아에는 21세기 대륙동맹과 해양동맹 대치가 격해지며 국가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나. 복합위기가 부른 정치 현실

- ◆ 여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정치체계를 강타하면서 통치불가능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체제가 작동하는 여러 전제나 조건들이 균열되고 도전받으면서 통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통치불가능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정치가 마비되었다. 양대 정당의 적대적 반사정치와 당쟁정치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생활정치의 민생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도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다.
- ◆ 문재인 정권은 선거와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수단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해체하려고 했다. 또한 포퓰리즘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왜소화했다.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된 것도 트럼프 체제처럼 지지자들이 선택한 결과다. 미국정치와 한국정치에는 동조와 차이가 있다. 미국 또한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며, 국민다수의 강력한 지지를 누리고 있는 잠재적인 차기 대통령 후보자가 야당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치와 닮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미국엔 ‘Founding Fathers’라고 하는 공통공감대가 있다는 것이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알렉산더 해밀턴 등이 그 예다. 정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시민이라면 인정하는 공통 기반이 있다. 2022년의 대한민국에는 과연 ‘Founding Fathers’가 있는가?
- ◆ 대한민국의 국민공감대는 아직도 조선시대에 머물러있다. 이는 국가 철학의 차원에서 치명적인 결여가 있다는 것이다. 끝나지 않는 역사전쟁, 우파와 좌파의 이중권력, 행정권과 입법권의 이중권력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욱 악화시킨다. 한국의 우파는 시민사회 담론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 국민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가 창출하는 지도력인 헤게모니 싸움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

◆ 어떻게 할 것인가

- ◆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이전 논란으로 인수위 시절의 헤게모니를 잃었다. 이준석 사태와 윤핵관 문제로 ‘취임 100일’의 헤게모니를 잃었다. 대신 신승을 가져온 역사적 연합(historical bloc)을 스스로 무너트려온 최약체 정부의 취임 100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수위는 취임 100일을 예고하고 취임 100일은 임기 1년을 예고하며 그것들의 합은 2024년 총선 결과를 예고한다.
- ◆ 헤게모니를 쌓아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했을 때 그는 탄핵되었다. 최대연합의 정치가 필수적이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죽느냐 사

느냐의 문제다. 세대로는 2030, 성별로는 여성, 지역으로는 충청과 호남, 이념으로는 중도·비판적 우파·합리적 좌파, 계층으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까지 포용해야 한다. 이들에게 울림이 있는 정책을 전면시행하고 국민적 호소력을 가진 인물을 삼고초려해서라도 모셔야 한다.

- ◆ 최대연합의 정책과 인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정치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며 정치적 사활의 문제다. 21세기의 그레이트 게임인 미중 패권경쟁과 북한문제는 대한민국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 대통령 리더십 위기가 한국 우파의 위기로 확산되고, 한국 우파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민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여 대처해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